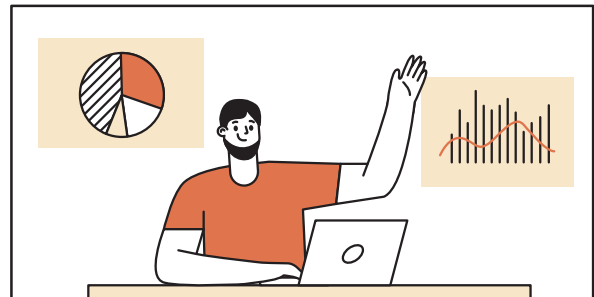


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

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

코트라 투자종합상담실 고용노동부 파견관 윤옥균 서기관



- 근로기준법 시행령,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관련법 일부 개정으로 '21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고용노동정책을 알려드리고자 함
- 주요 개정 사항은 ①기간제·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('21.7.1 시행) ②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('21.10.14 시행), ③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('21.10.14 시행), ④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('21.11.19 시행), ⑤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변경 신청권 신설('21.11.19 시행), ⑥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('21.11.19 시행), ⑦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('21.11.19 시행)



노사발전재단

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

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

1. 기간제·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(‘21.7.1 시행)

- **(개정내용)** 기간제·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*을 지급

*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: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%(월 200만원 상한)

- **(개정의의)**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

2.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 규정 신설(‘21.10.14 시행)

- **(개정내용)**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*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-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, 피해근로자 보호,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
* 직장내 괴롭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민법상 친족범위보다 축소하여 ①배우자, ②4촌이내의 혈족, ③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

- **(개정의의)**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강화

3.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(‘21.10.14 시행)

- **(개정내용)** 소액 체당금 지급대상을 현행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고,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도 간소화*

* 지급절차 간소화: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었으나(약 7개월 소요), 법원 확정판결없이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'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' 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급(약 2개월 소요)

- **(개정의의)**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

4.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(‘21.11.19 시행)

- **(개정내용)**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,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함

- 교부 의무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

- **(개정의의)**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,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

※ 임금명세서 기재사항: ①성명, ②생년월일, 사번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, ③임금지급일, ④근로일수, ⑤총 근로 시간수, ⑥연장근로,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, ⑦임금총액, ⑧기본급, 각종수당, 상여금, 성과급,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, ⑨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, ⑩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



노사발전재단

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

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

5.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변경 신청권 신설(‘21.11.19 시행)

- **(개정내용)** 임신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, 사업주는 이를 허용
 - 임신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임신기간,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
 - 사업주는 ①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, ②임신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
- **(개정의의)** 임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

6.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(‘21.11.19 시행)

- **(개정내용)** 임신 중 유·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
 - 육아휴직 총기간(1년)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며, 임신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
- **(개정의의)** 임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

7.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(‘21.11.19 시행)

- **(개정내용)**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,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
- **(개정의의)**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



Korea Labor and Employment Service 새롭게 출발합니다!

2021년 6월부터 기관 영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

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협력 및 차별 해소, 일터혁신 종합지원, 중장년 종합고용서비스 선도,
고용·노동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등 고용·노동분야 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,
"함께 발전하는 우리, 함께 여는 내일"의 비전으로 국민을 위한
고용노동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